

## 원티드랩, 1 분기 매출 79 억 원 ... “정액제 본격화 및 AI 기반 신사업 확대 박차”

- 채용사업 매출 60 억 원, 채용 비수기 및 대내외 영향으로 인한 기업 보수적 채용심리 여파
- 2 분기, 채용 성수기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정액제’ 매출 기여 본격화에 따른 손익 개선 기대
- 신사업 매출 19 억 원, 전년 동기비 16%↑... AX 사업 지속 투자로 향후 매출 확대 기반 마련도
- “AI 기술력 기반 HR 에이전트로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 공략 ... 매출 및 영향력 확대 목표”



<이미지 제공=원티드랩>

**2025년 5월 15일** – HR 테크 기업 (주)원티드랩은 15일 공시를 통해 1분기 매출 79억 원, 영업손실 1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채용사업 매출은 60억 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채용 비수기와 대내외적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보수적 채용 심리가 맞물려 합격자 수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하락했다. 다만 기업이 AI 등 핵심 기술 직군에 대한 채용은 지속하면서 평균 채용 수수료는 455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 회원 수는 368만 명, 기업 고객 수는 3만 2000개로 전년 동기대비 10%, 16% 증가했다.

2 분기에는 채용 성수기 효과와 더불어, 기업 대상 신규 비즈니스 모델인 정액제의 매출 기여가 본격화하며 손익 개선이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4 분기 대비 1 분기 국내 이직자 규모는 13% 증가<sup>1</sup>했으며, 원티드랩 채용사업 주요 선행지표도 올해 1 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합격자수는 월평균 14%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도입한 정액제는 기존의 ‘합격 당 과금’ 방식과 달리, 계약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수주형 모델로, 매출이 기간에 따라 분할 인식되는 구조다. 향후 본격적인 세일즈 활동으로 정액제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월 매출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up>1</sup>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이직자 수는 1,023,383명, 2024년 4분기 이직자 수 904,932명임.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AX(AI Transformation)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 고객 중 대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향후 매출 성장의 또 다른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19 억 원을 달성했다. 교육, 프리랜서 매칭, HR 솔루션 등 신사업은 기존 채용사업과의 연계 시너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원티드랩이 다수 생성 AI 서비스를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시한 AI 에이전트 빌더 '원티드 LaaS'를 중심으로 AX 신사업에 꾸준히 투자하며 향후 매출 확대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글로벌 사업 및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피투자사인 일본 IT 인재 커리어 매칭 기업 라프라스 서비스 내 AI 매칭 인프라 구축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양사가 현지에서 보유한 인재 채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의 브릿지 인재 채용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화했다.

이복기 원티드랩 대표는 “ AI 네이티브 기업으로서 AI 기술력과 약 1000 만 건 이상의 합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재 탐색부터 후보자 평가, 채용까지 완전 자동화를 제공하는 HR 에이전트를 선보일 것”이라며 “HR 에이전트를 통해 평균 약 50%의 성장률이 기대되는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sup>2</sup>에서 매출 확대와 함께 영향력을 강화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 약 90 조 원 규모<sup>3</sup>에 이르는 일본 HR 시장에서, 일본 IT 인재 플랫폼 '라프라스'와 시너지 투자 및 연결을 통해 글로벌 성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sup>2</sup>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마켓어스에 따르면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는 지난해 52 억 달러(약 7 조 5000 억 원)에서 2033년 1966 억 달러(약 284 조 9000 억 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up>3</sup> Statista(2023.10), [Market size of the recruiting industry in Japan from fiscal year 2018 to 2023'](#)